

‘서남권 문화관광 새로운 관문’ 나주역세권 개발 시동

교통·숙박·컨벤션 결합...미래형 복합도시 조성 추진

KTX 나주역 일대·서남권 복합경제거점 발돋움 기대

나주시가 KTX 나주역 일대를 교통, 상업, 문화, 숙박, 컨벤션이 어우러진 복합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나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나주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화를 통해 서남권 대표 교통, 관광,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성장축을 마련하고 교통 중심의 환승 공간을 넘어 미래형 복합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송월동 KTX 나주역 인근 6만6000㎡ 규모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구성은 교통환승존, 상업존, 문화존, 숙박존, 컨벤션존 등 5대 기능으로 교통과 상권,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교통환승존은 철도, 시외·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환승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상업존은 청년창업몰과 로컬브랜드 상가, 카페거리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존은 공연장과 전시관, 시민라운지 등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숙박존은 비즈니스호텔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갖춰 ‘머물고 가는 도시’의 기반을 다지며 컨벤션존은 국제회의, 전시, 행사 공간을 포함한 복합 비즈니스 시설로 조성해 나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와 수소 충전소, 공유모빌리티

구역 등 친환경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환승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전남도 등)과 협의를 통해 2027년 ‘중앙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교통, 환승, 주차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상업, 문화, 숙박, 컨벤션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KTX 나주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환승 거점을 넘어 나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제 허브로 조성할 것이다”며 “교통과 상권,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을 통해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나주가 서남권 대표 교통,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영광, 대한민국 솔라리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재생에너지 자립률 104%... 참여·공유 재생에너지 정책 선도

영광군은 최근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RE100협회의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업·단체를 발굴·포상 등의 목적으로 열린 올해 7회 전국 대회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정조호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군은 재생에너지 자립률 104% 달성, 군민 참여와 개발이익의 공유를 위한 조례 제정, 발전 이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공유화기금 조례 제정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화를 위해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염산면 월평마을의 3㎿급 전국 최대 규모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는 주민이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마을 28가구에 발전 수익을 배분하는 농촌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이익 공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에너지 전환의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장세일 군수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이룬 참여와 공유 중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주도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신안군장학재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생 531명을 최종 확정했다.

신안군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531명 선발

7억9410만원 지원...대학생 생활비 대폭 확대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김대인)은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생 531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7억 94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3억1140만원) 대비 4억8270만원 증가한 규모다.

재단은 10월 1~22일 9개 분야에 걸쳐 장학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97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531명을 선발했다.

특히 대학생 생활비 지원 분야는 C학점 이상 취득자를 전원 선발하는 방식으로 360명에게 7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자 증가 요인으로는 타 기관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연 2회 신청 가능, 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등 폭넓은 기준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이 꼽힌다.

한편 재단은 2025년 하반기 장학금을 포함해 올해 총 1084명에게 17억952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순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순천시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전염성이 높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일반 시민들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구례 지리산 화엄사, ‘캠핑스테이’ 진행

12월 말까지 4회 운영...야외 텐트서 1박2일 숙박

구례 지리산 화엄사(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교구장 우석스님)는 전년 고찰 화엄사 화엄원 특설 마당에서 문화공간 확장 프로그램 아웃도어 캠핑스테이 ‘하산화심’을 진행한다.

캠핑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캠핑과 기존의 템플스테이를 겸한 프로그램이다.

화엄사는 캠핑스테이 프로그램은 마음의 빈 공간을 겸손과 자각의 태도로 채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과 시작’이 열리는 순간을 만들어 주려고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핑스테이는 오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4회(화당 1박 2일) 진행된다. 1회는 15~16일 2일간, 2회는 29~30일 2일간, 3회는 12월 5~6일 2일간, 4회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 2일간이며, 매회마다 정원은 30명이다.

이번 캠핑스테이 프로그램 ‘하산화심’은 MZ세대인 대학생과 청년세대(20~30대)로 연령 제한을 뒀으며, 참가비는 무료인데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교구장 우석스님은 “캠핑스테이 슬로



건 하산화심은 ‘몸을 낮추는 순간, 마음은 화엄의 꽃처럼 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추운 겨울 야외에서 1박 2일 캠핑스테이를 통해 몸을 낮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고 말했다.

캠핑스테이를 기획한 흥보국장 범정스님은 “천년의 공간 화엄사에서 캠핑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비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하산화심 의미대로 화엄의 꽃처럼 피어나고 함께 연결돼 있는 진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12만3000명 찾아

10주년 기념 연출 호응...안전한 운영 속 축제 마무리

여수시가 최근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개최한 ‘2025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 12만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불꽃, 밤바다-여수에 물들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축제는 시립합창단 클래식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총 5막으로 구성된 불꽃 연출이 이어졌으며 합합아티스트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도입된 연출 기법을 활용한 불꽃쇼는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유관기관, 자원봉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질서 있는 현장 운영으로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대규모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했다.

다만 비로 인해 불꽃쇼와 함께 준비됐던 드론쇼는 취소됐다.

정기명 시장은 “긋은 날씨에도 여수를 찾아주신 많은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아심 차게 준비한 드론쇼를 선보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내년 불꽃축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개최하는 만큼 한층 더 향상된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일근 기자 swg3318@

